

해양수산 산업동향

OCEAN · FISHERIES · INDUSTRY · TRENDS

발행인 양창호 |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TEL. 051-797-4799 | FAX. 051-797-4759

8월
2019

www.kmi.re.kr



해양수산업경제

- 중국, 상반기 해양경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
- 독일 함부르크항, 2019년 상반기 물동량 6,940만 톤 기록
- 세계 해상 포워드 시장규모, 2026년에 13.6억 달러 전망
- 세계 해조류 제품 시장, 2019~2024년 동안 연평균 7.1% 성장 전망
- 세계 해양 콜라겐 시장규모, 2024년에 9억 달러 넘어설 듯
- 세계 해저케이블 시스템 시장, 2025년까지 연평균 12.1% 성장 전망
- 세계 해양 코팅 시장, 2024년에 58억 달러에 달할 전망

해양수산업기업

- 100% 전동 페리선 덴마크에서 처녀 항해 완료
- 미국 교통부, 세계 최초로 자율 기름유출 대응 선박 테스트 성공
- 일본 수산업계, 인력 부족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 모색
- 미국 스타트업, 배양 수산물 상용화 추진
- 러시아 물류스타트업, 라트비아에서 파일럿 프로젝트 발표
- 미국 해양대기청(NOAA), 어류 개체군 관측을 위한 항해 드론 개발

해양수산업정책

- 영국 스코틀랜드, 해양경제에 560만 파운드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추진
- 중국 산둥성, 웨하이(威海) 해양경제발전시범구 건설 종합방안 발표
- EU, 캄보디아 수산 발전 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수산물 혁신기금으로 변화 촉진
- 일본, 케냐의 블루 이코노미에 투자 약속
- 미 해군, ERP를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사이버 보안 강화

해양수산 산업동향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99) 또는 이메일(jiwon@kmi.re.kr)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양수산경제



중국, 상반기 해양경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

중국 자연자원부 해양전략계획·경제사(海洋战略规划与经济司)는 지난 8월 14일 국내외 중국 해양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된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상반기 해양경제 생산총액이 약 4조 위안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해양원유와 해양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3.5% 증가하는 등, 중국의 해양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선박건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으며, 신규 수주량은 46.9%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1월~5월보다 6.9%p 감소했다. 하지만 전국 수주잔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3% 하락했다. 연해 화물량, 원양 화물량 및 연해 항만 물동량은 각각 9.7%, 9.1%, 3.1% 증가했다.

반면에 해양신산업의 구조조정은 가속화되고 있다. 해양의약·바이오와 해양에너지 기업의 이윤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16.5% 감소했다(감소 폭은 1월~5월보다 1.5%p, 7.4%p 감소).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6%, 13.6% 감소했으며, 하락 폭은 1월~5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해양플랜트 신규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으나, 인도 수주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6월말까지 수주잔량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전국 크루즈 부두 입출항 여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고, 감소폭은 1월~5월보다 4%p 감소했다.

| 원문 | KMI 중국연구센터 주간동향(원문 : <http://epaper.oceanol.com/content/201908/16/c12427.html>)

독일 함부르크항, 2019년 상반기 물동량 6,940만 톤 기록

독일 함부르크항의 2019년 상반기 해상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6,940만 톤을 기록했다. 일반화물 부문이 6.1% 증가한 4,840만 톤을 기록하며 성장을 이끈 반면 벌크화물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2,100만 톤에 그쳤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7.5% 증가한 470만 TEU를 기록했으며, 이는 올해 초 한자도시(Hanseatic City)와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잇는 4개의 신규 정기선 서비스 개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함부르크항에서 처리된 함부르크-미국 간 컨테이너 물동량 28.3만 TEU는 단숨에 미국을 함부르크항의 컨테이너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2위에 올려놓았다.

2019년 상반기 함부르크항을 기항한 컨테이너선은 3.7% 증가한 3,046척이며, 이 중 18,000 TEU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 수는 89척으로 전년 대비 36.9% 증가했다. 함부르크항의 환적물동량은 5.5% 증가한 170만 TEU를 기록했으며, 항만 배후지 서비스는 8.7% 증가한 290만 TEU를 달성했다.

한편 함부르크항은 북유럽의 허브항만으로 100개 이상의 정기선이 운항하며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항만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연간 218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독일의 국가 경제 전체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원문 | <https://safety4sea.com/port-of-hamburg-records-strong-2019-first-half/>

세계 해상 포워더 시장규모, 2026년에 13.6억 달러 전망

해상 포워더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반 해상운송업체를 통해 화물을 발송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해당 발송물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는 활동, 또는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개인 및 회사를 말한다. Report Consultant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해상 포워더 시장은 2015년에 9.6억 달러에서 2019년 11억 달러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연평균성장률은 4%였으며,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6년에는 13.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 포워더 대표 기업으로는 Kuehne + Nagel, DHL Group, DB Schenker Logistics, GEODIS, Panalpina, DSV, Bolloré Logistics, Expeditors, Nippon Express, CEVA Logistics, Pantos Logistics, Agility Logistics 등이 있으며, 선두기업인 Kuehne + Nagel 사의 경우 2016년에 세계 시장의 10%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문 | <https://www.marketexpert24.com/2019/08/22/ocean-freight-forwarding-market-is-thriving-worldwide-over-2019-2026-with-top-key-players-kuehne-nagel-dhl-group-db-schenker-logistics-geodis-panalpina-dsv-bollora-logistics-exp/>

세계 해조류 제품 시장, 2019~2024년 동안 연평균 7.1% 성장 전망

Research N Reports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해조류 제품 시장은 2018년에 38억 달러로 추정되며, 향후 연평균 7.1%씩 성장하여 2024년에는 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해조류 제품은 아태 지역,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시장의 성장률은 5.7%를 유지하고, 중국 역시 9.7% 이상의 성장잠재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조류 제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는 BASF, Cyanotech, Cargill, Dowdupont, Kerry, Ingredion, Algix LLC, Diversified Energy, Kent BioEnergy, Algenol Biotech(미국), Corbion NV(네덜란드), DSM Nutritional Products AG(스위스), Pond Technologies (캐나다), Sapphire Engineering(영국), Affinity Energy & Health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다.

| 원문 | <https://www.marketexpert24.com/2019/08/22/marine-algae-products-market-is-poised-to-grow-at-a-cagr-of-7-1-by-2024-top-key-players-algix-llc-usa-corbion-n-v-the-netherlands-diversified-energy-corporation-usa-dsm-nutritional-prod/>

세계 해양 콜라겐 시장규모, 2024년에 9억 달러 넘어설 듯

Research N Reports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세계 해양 콜라겐 시장규모는 6.5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 시장은 향후 연평균 6.8%씩 성장해 2024년에는 9억 5,8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지역이 해양 콜라겐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이 뒤를 잇고 있으며, 아태 지역과 중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기업으로는 Ashland, Darling Ingredients, Nitta Gelatin, Gelita, Weishardt Group, Amicogen 등이 있다.

| 원문 | <https://www.marketexpert24.com/2019/08/22/in-depth-research-on-marine-collagen-market-by-2024-top-key-players-ashland-darling-ingredients-nitta-gelatin-gelita-weishardt-group-amicogen/>

세계 해저케이블 시스템 시장, 2025년까지 연평균 12.1% 성장 전망

Verified Market Intelligence는 전 세계 해저케이블 시스템 시장의 가치는 2017년 100억 5,500만 달러에서 2025년까지 2,62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며, 2018년에서 2025년까지 연 평균 12.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저케이블 시스템은 해저에 설치된 케이블의 일종으로 바다와 바다를 가로지르는 통신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육상 기지국 사이의 해저에 설치된다. 이 케이블은 해저케이블을 탑재한 특수 개조된 선박의 도움을 받아 케이블 운영자가 제공한 지침에 따라 해저에 배치된다. 해저케이블 시스템은 높은 압력 등의 악조건을 견뎌야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작되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의 인터넷 트래픽 증가와 인터넷 사용자수 증가로 해저케이블 시스템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 원문 | <https://socioherald.com/submarine-cable-system-market-2019-growth-opportunities-industry-analysis-size-share-geographic-segmentation-till-2026/112588/>

세계 해양 코팅 시장, 2024년에 58억 달러에 달할 전망

Research N Reports의 시장 전망에 따르면, 세계 해양 코팅 시장은 2018년에 45억 달러에 달했으며, 2019~2024년 동안 4.2%씩 성장하여 2024년에는 5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북미 지역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유럽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아태지역, 중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의 신흥경제국도 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선도기업으로는 Akzo Nobel N.V, PPG Industries, Sherwin-Williams, Axalta Coating Systems, BASF, KANSAI PAINT, Nippon Paint Marine Coatings 등을 들 수 있다.

| 원문 | <https://www.marketexpert24.com/2019/08/22/top-report-on-marine-coating-market-by-2024-top-key-players-axalta-coating-systems-llc-basf-kansai-paint-co-ltd-jotun-hempel-foundation-mascoat-comex-kcc-corporation/>

해양수산기업



100% 전동 페리선 덴마크에서 처녀 항해 완료

차량 30대와 여객 200명을 운송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100% 전동 페리선 엘런호(Ellen)가 덴마크에서 운항을 시작했다. 엘런호는 스위스 배터리 생산업체인 Leclanche가 공급한 4.3 MWh급 배터리를 사용하여 덴마크의 Aero섬과 Als섬에 각각 위치한 Soby항과 Fynshav항을 정기 운항할 예정이다.

완전 전기 구동선인 엘런호가 향후 1년 동안 운항할 경우 기존 동급 선박에서 배출하는 2,000 톤의 이산화탄소, 2.5 톤의 미립자 및 1.4 톤의 황산화물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엘런호는 E-Ferr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EU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충전 없이 최장 22해리(nm)까지 운항할 수 있다.

<100% 전동 페리선 엘런호>



출처 : E-Ferry Project

| 원문 | <https://safety4sea.com/all-electric-ferry-completed-maiden-voyage-in-denmark/>

미국 교통부, 세계 최초로 자율 기름유출 대응 선박 테스트 성공

미국의 교통부 해양관리국(MARAD)은 포틀랜드 항구에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이번 테스트에 쓰이는 선박은 MSRC가 소유하고 Vigor와 Kvichak Marine Industries의 협력으로 건조되었으며, 세계 최초의 기름유출 자율 대응 능력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육상에서 선박의 원격 자율 제어, 전자항해 차트 기반의 미션 계획 수립, 자율 항로 추적, 자율 그리드라인 추적, 다중 선박 운영을 위한 협업 등의 기능이 실증되었다. MSRC사의 존 스위프트(John Swift) 부사장은 “무인 자율 모드에서 이 선박을 사용하면 험한 조건의 바다와 날씨, 유독가스 및 기타 안전 위험에 대한 선원의 노출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증 테스트는 2018년 8월 덴마크 코소르에서 Tuco Marine 사가 소유한 세계 최초의 원격제어 소방보트에 Sea Machines 사의 SM300 제품을 사용한 검증시험에 이어 진행된 테스트이다. SM300 자율 명령 및 컴퓨터 유도 선박 제어시스템은 신조 선박에 설치하거나 기존 선박을 개조할 수 있다.

| 원문 | <https://www.rivieramm.com/news-content-hub/news-content-hub/worlds-first-autonomous-spill-response-vessel-opens-new-era-in-marine-applications-55996>

일본 수산업계, 인력 부족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 모색

일본 수산물 생산업계에서는 노동력 감소, 규제에 의한 제약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산업계는 현재 고령화가 지속되고 산업을 계승할 인력이 줄어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철강기업인 일본제철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양식 어류 관리 및 특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양식 어류의 평균 사이즈를 측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존에는 소규모로 모집단을 추출하여 실제 사이즈를 측정하였다면, 인공지능 시스템은 카메라 영상을 이용하여 전체 친어 무게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향상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양식과 관련하여 또 다른 인공지능 시스템은 수온, 염분, 풍향, 이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사료 효율을 최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어업의 경우 시장 수요, 다른 어선의 조업구역 위치 등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하여 어업인들이 남획을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원문 |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9/08/12/japanese-seafood-industry-turns-to-ai-in-response-to-labor-shortage/>

미국 스타트업, 배양 수산물 상용화 추진

'배양 수산물'을 연구·생산하는 미국의 핀리스 푸드스(Finless Foods)사는 세포로 키운 참다랑어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블루 나루(Blue Nalu)사 또한 부시리와 만새기의 세포를 이용하여 필렛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 배양 수산물을 연구·생산하는 회사는 10개 미만이다. Finless Foods와 같은 회사는 작은 어류 생체를 이용해 식품 인증시설에서 식용 어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첫 번째 자금 조달에서 투자자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모았다.

세포 기반 어류가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육지에서 세포를 배양하면 어업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압력이 줄어든다. 또한 세포 기반 수산물은 기증 물고기에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생명윤리 및 복지 논쟁에서 자유롭다. 어류는 실험실에서 통제되는 조건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어업 및 양식과 관련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다만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역시 비용 문제이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렴한 사료, 효율적인 생육, 배양 배지(growth media)의 재활용이 필요

하다.

| 원문 | <https://thefishsite.com/articles/cell-based-seafood-and-the-future-of-food-part-i>

러시아 물류스타트업, 라트비아에서 파일럿 프로젝트 발표

러시아 모스크바 기반의 Marine Digital 사는 벌크 터미널용 창고관리시스템과 항만자동화시스템(항구로 들어오는 선박 또는 선박의 프로세스)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Marine Digital 사는 물류 및 항만 노동서비스 제공업체인 Port Magnat 그룹과의 시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Port Magnat 그룹은 라트비아로부터 스타트업 비자를 받고 리가로 이주한 최초의 스타트업 팀 중 하나이다.

이 프로젝트는 Port Magnat 그룹의 트랜스 로딩 터미널 중 하나에서 수행되어 Marine Digital System이 벌크 및 일반화물 터미널용으로 구축한 창고 관리 솔루션을 테스트하게 된다. 이 회사의 제품은 항만의 운영비용을 5~10% 절감하여 연간 수익 유로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Port Magnat 그룹의 대표인 알렉세이 오시코프(Alexey Osipkov)는 “이 파일럿을 통해 적시 서비스 모델의 통합을 시작하여 종이문서를 줄이고 온라인 데이터로 고객 서비스 모델을 업그레이드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현재 1,000개 이상의 유럽 터미널이 이 라트비아 스타트업의 고객이 될 수 있다. 함부르크와 로테르담을 포함해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 중 일부는 이 제품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 원문 | <https://www.eu-startups.com/2019/08/moscow-founded-port-logistics-startup-marine-digital-announces-new-pilot-project-after-receiving-latvian-startup-visa/>

미국 해양대기청(NOAA), 어류 개체군 관측을 위한 항해 드론 개발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미국 북부 해안의 어류 개체군 관측을 위하여 항해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대변인 마이클 밀슈타인(Michael Milstein)은 밝혔다. 이 항해 드론은 태양에너지를 사용한 자율 주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어류 개체군의 양 및 어획 가능량 관측을 위하여 쓰일 예정이며 선박을 이용한 기존의 수산업 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변인 마이클 밀슈타인은 말했다.

마이클 밀슈타인은 “현재까지는 연구를 위해서 항해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기존의 선박을 이용한 경우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항해 드론은 일반 선박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탐사할 수 있다. 특히 파도가 아주 높아 기존의 선박으로는 탐사가 불가능한 지역을 항해 드론은 접근할 수 있으므로 어류 개체군 관측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북서부 수산업 과학센터(Northwest Fisheries Science Center, NWFSC)에서 출항시킨 2개의 선박과 7개의 항해 드론 중 현재는 1개의 항해 드론만이 해상에서 정보를 보내오고 있다고 대변인 마이클 밀슈타인은 전했다.

| 원문 | <https://lostcoastoutpost.com/2019/jul/30/noaa-using-futuristic-sailing-drones-study-fish-po/>

해양수산정책



영국 스코틀랜드, 해양경제에 560만 파운드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추진

스코틀랜드의 Mairi Gougeon 농촌부 장관은 스코틀랜드의 '중요한' 해양경제에 대한 560만 파운드의 자금 지원이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560만 파운드 중 420만 파운드는 EU의 해양수산펀드로부터, 140만 파운드는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수혜자 중 Seafood Scotland는 수산물 시장을 확대하는데 130만 파운드를 지원받게 될 것이며, JK Thomson은 새로운 수산물 가공공장 건설비용으로 135만 파운드를 지원받게 된다.

Gougeon 총리는 "해양경제는 해안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식음료 산업의 가치를 2배로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수출시장 개척 및 공장의 시설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560만 파운드의 투자는 해양경제 공급망을 지원하여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원문 | <https://www.bbc.com/news/uk-scotland-scotland-business-49219548/>

중국 산둥성, 웨하이(威海) 해양경제발전시범구 건설 종합방안 발표

최근 중국의 산둥성 발전개혁위원회, 자연자원청 및 해양국이 「산둥성 웨하이 해양경제발전시범구 건설 종합방안」(이하 「방안」으로 약칭)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종합적인 원양어업 발전 추진, 전통어업 구조개선 가속화, 해양바이오의약품산업 및 해양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웨하이시를 국가급 해양경제발전시범구로 건설할 계획이다.

「방안」은 해양경제발전수준, 생태환경보호, 해양과학기술 혁신, 해양 공공서비스 체계 및 해양 인프라 건설 등의 다섯 가지 면에서 해양산업의 부가가치액 증가,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항만규모 등급 등에 관한 20개 항목의 지표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통하여 2020년까지 시범구의 해양경제 종합 편익성은 현저히 제고되고, 해양종합관리수준은 향상되며, 과학기술의 해양경제에 대한 기여가 60% 이상에 달하고, 해양기능구역 수질의 기준 도달율이 100%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구의 전체면적은 148km²로, 룽청시(荣成市) 남부, 동부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핵, 2벨트'의 시범구가 조성된다. '1핵'은 시범구 핵심구역을 가리키며, 웨하이(룽청)해양첨단기술산업원구, 국가 원양어업기지 시범 기능구, 현대 어업시범기능구, 해양운송물류 및 장비제조 시범기능구, 수산물 정밀 가공 및 콜드체인 물류 시범기능구 등의 '1원구, 4기능구(一园四区)'를 포함한다. '2 벨트'는 연해 레저관광벨트와 해양목장벨트를 포함한다. 연해 레저관광벨트는 시범구 북쪽에 위치해 있고 문화전시구, 고급 요양·휴양구, 생태관광구, 해양운동·레저구, 자연경관구 및 계명도(鸡鸣岛)의 '5구1섬(五区

一島)'를 배치한다. 시범구 동쪽에 위치한 해양목장벨트에는 생태적이고 고효율적인 새로운 해양목장 양식과 가공 모델이 개발될 예정이다.

| 원문 | KMI 중국연구센터 주간동향(원문 : <http://epaper.oceanol.com/content/201908/16/c12430.html>)

EU, 캄보디아 수산 발전 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유럽연합(EU)이 캄보디아 정부에 1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캄보디아 훈 센(Hun Sen) 총리가 밝혔다. 아울러 EU가 지급하는 1억 3,500만 달러의 보조금은 수산업과 관련한 두 가지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캄보디아의 농림수산부 대변인인 스레이 부시(Srey Vuthy)가 밝혔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수산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작년부터 진행되어 2023년까지 3,900만 달러 지원이 계획되었으며, 이 중 약 550만 달러가 프랑스 국제개발원조 기관인 개발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내수면 및 해면어업의 전 분야에 걸쳐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까지 5년간 966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 내 수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양식업 성장 도모 및 수산 자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원문 | <https://www.phnompenhpost.com/business/eu-provide-135m-fishing-industry-grant>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수산물 혁신기금으로 변화 촉진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for 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 지난달에 신설한 1,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수산물 혁신기금(Seafood Innovation Fund)을 활용, 해양 연구와 산업 혁신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수산물 혁신기금은 환경·수산·양식 과학센터(Centre for Environment, Food and Aquaculture Science)가 자금을 운용할 예정이다. 공학기술연구소(Institution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의 정책실장인 조안나 콕스(Joanna Cox) 박사는 기금의 목적이 수산업의 지속가능하며 생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업인과 기술자들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에서는 AI 및 로봇 공학 등 기술 투자를 통해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수산물 혁신기금이 영국 수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술업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선구적 역할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수산물 혁신기금은 새로운 어획기법에서부터 어업 관리에 이르기까지 어업 공급망의 모든 분야의 혁신에 적용되며, (i) 원치 않는 포획과 취약한 어종의 우발적 포획을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어구 개발 및 실시간 어획물을 감시하는 데이터 캡처 구현, (ii) 어획물 분류 체계 자동화를 통한 방생 어종의 생존율 제고, (iii) 폐기된 어획물을 양식 사료로 재활용하는 형태의 지속가능한 양식업을 위한 혁신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부문에 활용될 예정이다.

| 원문 | <https://www.governmenteuropa.eu/seafood-innovation-fund/94192/>

일본, 케냐의 블루 이코노미에 투자 약속

일본은 케냐의 몸바사(Mombasa) 항만의 해상 보안 및 현대화에 기반한 케냐의 블루 이코노미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료이치 호리에(Ryoichi Horie) 주케냐 일본 대사는 양국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케냐의 해양과 해양의 잠재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호리에 대사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윌리엄 루토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케냐의 몸바사 항만 개선을 계속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호리에 대사는 몸바사 항구의 현대화가 케냐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며 일본은 Vision 2030에 명시된 케냐의 산업화 실현을 계속 도울 예정이며, 케냐와 협력하여 해양 기반 경제를 다지고 해상안보의 위협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케냐 해양에서 불법 어업이 근절되기 위한 케냐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러한 불법 어업 활동이 케냐의 블루 이코노미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루토 부통령은 운송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몸바사 항만의 확장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양국은 불법 어업을 없애기 위한 협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원문 | <https://www.kbc.co.ke/japan-pledges-to-invest-in-kenyas-blue-economy/>

미 해군, ERP를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사이버 보안 강화

미 해군은 사상 최대 규모의 전산화 비즈니스 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리처드 스펜서(Richard V. Spencer) 미 해군장관은 해군 ERP 기술 업데이트는 현재까지 사상 최대 시스템의 클라우드로의 전환 작업이며, 미 해군의 능력을 향상시킬 놀라운 성과라고 말했다.

해군은 6개 해군사령부의 7만 2,000명의 해군장병들이 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군의 모든 금융시스템을 하나의 총 계정 원장에 통합하여, 감사 준수를 달성하는 단계라고 해군 CFO 토마스 하커는 밝혔다. 해군은 작년 육군·공군·해병대와 함께 회계감사에 실패하였는데, 이는 국방부 전반에서 IT 보안 통제력 부족과 의문의 지출이 주요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 해군은 ERP 클라우드 전환 작업에는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 작업을 통하여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를 위해 필요한 작업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원문 |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u-s-navy-boosts-cybersecurity-by-moving-erp-to-the-cloud>